[게임대사\_V1.08\_240312]

<챕터1>

(가족사진 찍는 장면과 오르골로 줌인/게임 화면으로 전환)

~~b: (두리번 거리며) 못찾겠다 꾀꼬리~! a! 어딨어어?~~

~~a: (부르는 소리를 듣고 숨어있던 이불에서 나온다) 아, 맞다... b랑 숨바꼭질 하고있었지. 숨어있다가 깜박 잠들었나봐.~~

~~나 내방에 있어어!~~

~~b: 알겠어어! 일단 나 올라갈게!~~

~~a: 응! 중간에서 만나자~!~~

(길이 상자로 막혀있는 것을 보고)

~~a: 으음, 길이 막혔잖아? 상자를 밀면서 가야겠는걸?~~

(b의 방)

~~a: 오르골,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행이다~~

~~고마워 b!~~

~~b: 후후, 앞으론 잃어버리지 마!~~

~~a: 응! 그나저나 아까 멋있었어.~~

~~요정이 마법을 부리는 것 같은 느낌? 히히~~

~~어랏, 저게 뭐지? (악보 조각을 발견)~~

~~b: 잘린 오르골 악보인 것 같은데....?~~

~~a: 한번 돌려볼까? (오르골과 악보조각을 결합)~~

(머리속에 문득 생일날의 기억이 떠오른다)

~~a: 사람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며 행복한 꿈을 꾸었답니다~~~

~~b: 와아~ a의 이야기는 언제나 행복한 분위긴 것 같아.~~

~~a: 히히, 슬픈건 싫잖아.~~

~~맨날맨날 이렇게 즐겁고 평화로운 하루면 좋겠-~~

~~아버지: 얘들아~! 아빠표 반반 케이크! 완성이오~~~

~~어서들 오거라~~~

~~아이들: !!!~~

~~네에~!~~

~~(거실로 달려감)~~

(일러스트)

다같이: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a, b~ 생일 축하합니다~

아이들: 하나, 둘! 후~

a: 맛있겠다아...!!

케이크도 잘 만드시고, 옷도 잘 만드시고

아빠는 못 하는게 없는 것 같아요!

역시 우리 아빠가 최고!

아버지: 하하, 아빠도 a가 그렇게 말해주니 기쁘구나

이참에 아빠, 가게 하나 차릴까보다. 으하하!

b: ... 맞아! 우리 아빠 최고~!

어머니: 어이구... 가게는 무슨 가게에요?

먹고 선물도 풀어보고 있으렴

엄마, 아빠는 설거지 좀 하고 올게~

(일러스트 종료)

b: a, 아~!

a: 와앙~ 마힜다!

b, 너도 아~ 해!

b: 히히, 난 내가 먹을게! 고마워

a: 상자에는 뭐가 들었을까?

b: 어서 열어보자!

a: 응! 하나 둘...!

우와아... 오르골이다!

b: 인형 귀엽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a, 너도 감사하다고 해야지!

a: 앗 맞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허허,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구나.

어머니: 참, 이럴 때 보면 b가 한참은 누나같아요.

지난번에도 도와줄 거 없냐며 물어봤다니까요~?

아버지: 워낙 b가 어른스럽잖소. 학교에서도 a를 잘 챙긴다 하더군.

b: ....! (그말을 듣고 기분 좋은 표정을 지으며) 인형에게 맹세합니다.

앞으로 나 b는 a를 지켜주는 더욱 멋진 누나가 되겠습니다!

a: 뭐어? 고작 3분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래도 b라면... 뭐, 인정이야!

아버지: 하하, 오늘의 주인공들~? 이제 사진 찍으러 나가볼까?

아이들: 네~ 좋아요!

(회상 끝)

a: 어라, 갑자기 생일 때 기억이 나타났어.

b: 그러게...? 신기...하다.

a: 히히, 항상 생일마다 아빠가 우릴 위해 뭘 만들어주셔서 너무 좋아!

맨날 생일 같았으면 좋겠다아~

b: 히히, 맞아.

앗, 이럴 때가 아니지.

우리 얼른 게임이나 하자!

(b의 방에서 미니게임 후)

b: 이번엔 뭐 할까?

a: 음... 방금 생각난건데 피터팬 놀이는 어때?

b: 피터팬 놀이?

a: 환상의 나라에 침입한 괴물을 물리치는 놀이야!

b: 오! 나는 그럼 요정할래~!

(나는 시늉)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잖아~!

a: 히히, 요정은 마법의 도구도 있어야 하니까! 오르골은 b한테 잠시 빌려줄게!

아까처럼 마법으로 괴물을 물리치는거야!

b: (웃으며) 고마워 a. 아끼는 물건일텐데, 소중히 다룰게!

a: 헤헷, 그럼 나는 피터팬 해야지!

피터팬의 그림자가 같이 도와줄거야!

b: 하하, 그럼 모험을 떠나볼...

(갑자기 문밖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리며, 큰 소리와 함께 문이 부서진다.)

<챕터2>

(괴물 등장)

a: 헉, 저, 저건... 괴물...??

b: 진짜 괴물이잖아...!

a: 이럴수가... 내가 한 말이 진짜가 되어버다니...

b: a! 뛰어! (대쉬 해금)

(괴물이 상자를 던져 계단으로 내려가는 길이 막힌다.)

a: 으어, 어, 어떡해...! 길이 막혀버렸잖아?

b: 일단 화장실로....!!

(계단을 내려가던 중)

b: 엇, 어어...! (난간을 붙잡았으나, 오르골이 계단 밑으로 굴러떨어지며 소리를 낸다)

a: 헉, b!! (초조한 얼굴) 어쩌지 뒤에 괴물이...!

(괴물이 멈춰있는 모습)

b: 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a: 노래가 들리더니 갑자기 멈췄어...

b: 휴...다행이다. 그렇지만 언제 다시 움직일지 몰라.

어서 다른 곳으로 가자.

a: (중얼) 내 그림자가 더 커지면 괴물을 대신 물리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b: 헛, 좋은 생각이다! 손전등 같은게 있으면 그림자가 더 커질거야!

어서 지하실로 내려가보자!

(지하실)

a: (문과 상호작용 시) 문이 잠겨있어.

b: 열쇠 두개가 필요하네...

아, 전에 보니까 주방이랑 안방에 열쇠를 두셨던 것 같아.

a: 그럼 어서 가보자

(안방에서)

a: 열쇠가 어디에 있을까...?

b: 흠... 아빠가 보통 주머니에 열쇠를 넣고 다니시니까

옷 주머니 속에 있지 않을까?

a: 그럼, 옷장에서 찾아봐야겠네?

그런데... 저걸 어떻게 열지

(열쇠 획득)

(떨어진 악보 획득)

a: 어라, 또 악보가 있잖아?

(이때 괴물이 방으로 들어온다)

a: 괴, 괴물이 들어왔어...!!

(오르골을 돌릴 시 괴물이 멈추며 기억 회상)

아버지: 후... 이번에도 몇명 해고당했다는군.

어머니: 요새 경기가 안 좋긴 한가봐요.

아휴, 그나저나 당신. 옷장에 있는 것 좀 치워봐요.

만들다 만 옷에다, 고쳐입겠다고 자른 옷들이 한두 개여야죠.

아버지: 아니 방금까지 회사 갔다온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요즘 당신 많이 달라졌어요.

주에 한번은 꼬박 대청소를 하던 사람이, 점점 안 치우질 않나

다짜고짜 화를 내지 않나...

아버지: 내가 무슨 화를 내었다 그러시오?!

그리고 당신, 애들만 남기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온담서요?

아무리 b가 어른스럽데도 아직 애요 애!

어머니: 내가 뭐, b를 부려먹기라도 했다는 거에요??

애가 워낙 돕길 좋아하니까 맡겨준 건데, 왜 나보고 난리에요!?

b: 엄마랑... 아-

a: (울먹거리는 모습) 엄마랑 아빠랑 싸워...?

이러다가... 같이 안 살면 어떡하지...?

b: ...! (어두운 표정으로 입술을 꽉 물었다가 다시 a를 보며)

우리 일단 방에 가자.

(a의 방)

a: (훌쩍)...생일 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땐 엄마랑 아빠랑... 다같이 행복했는데.

b: (생일 날... 앗!)

(오르골을 가져와 돌린다)

짠, 어때? 듣고있으니까 생일 날로 돌아간 것 같지 않아?

a: (훌쩍) ...그러네.

진짜... 꼭 시간 여행을 온 것 같아

b: 히히, 다행이다.

앞으로 이 시간이 그리우면 오르골 소리를 듣는거야!

a: 응, 고마워 b...!

... 그나저나 b, 너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한거야?

난... 어린 애 같은데...

b: 음, 난 a의 아이같은 모습이 참 좋은걸!

a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이야기들도 얼마나 재밌는데!

그리고 생일 때 맹세했잖아. 내가 널 지켜줄거라고.

그러니까, 넌 계속 어린아이같이 맑은 모습을 지켰으면 좋겠어.

어른은 내가 할게! 히히

a: ...좋아

하암... 그나저나 계속 듣다보니 졸린 것 같아...

b: 졸리면 어서 자!

a: 그래야겠다...

왠지 좋은 꿈을 꿀 것 같은 걸...?

(a가 잠에 들고)

b: (난 어른스러운 아이야...

그러니까... 동생을 더 잘 챙겨줘야 해...)

(회상 끝)

a: ... 엄마랑 아빠가 싸운 적이 있었나...?

게다가 아빠가 저렇게 화내는 건 처음인데...

뭔가... 무서워.

b: (불안한 표정)...이, 일단 괴물이 또 움직일 수 있어

어서 가자!

a: ....그래

(주방에서)

b: 이번엔 어디에 있을까...

a: 헛, 저기 냉장고 위에...!

b: 그렇네, 위험하니까 내가 날아서 가져올게!

(선풍기로 인해 실패)

a: b....!! 괘, 괜찮아??(어두운 표정)

b: 어어...? 헉, 나 괜찮아! 걱정마!

봐~ 하나도 안 다쳤어!

a: ... 다행이다.

(왠지... 익숙한 느낌은 뭐지...?)

(악보 획득)

b: 또.... 악보네

a: ...그러게

악보를 돌릴 때 마다, 계속 이상한 기억이 들어와.

정말 이상하단 말이지...

b: ... a, 무서우면 이번엔 그냥 돌리지 않는게 어때

a: ... 하지만 뭔가 돌려야 할 것 같은-

(괴물 등장)

(오르골을 급히 돌린다)

(주방)

a: 조심 조심...!

b: 으앗(쨍그랑-)

a: 헉, 괜찮아??

아버지: 너희, 지금 뭐하는거야!

a: 그, 그게... 제가 과자를 먹고싶다고 해서...

b가 꺼내주려다가 실수로 그만...

아버지: 분명 과자 많이 먹지 마라고, 저기 올려뒀을텐데?

너희도, 아빠 무시하는거니??!

a: 죄송해요...

<챕터3>

(오르골 돌림)

아버지: ...다녀왔-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거요?

(아이들이 박스더미 뒤에 숨어서 지켜봄)

어머니: (쌓여있는 박스들) 보면 몰라요? 정리중이잖아요.

아버지: 그건 내 물건들이잖소!

어머니: 언제까지 그렇게 지저분하게 있을 거예요?

아버지: 잔소리, 잔소리!

당신은 내가 피곤한 것 보다, 잔소리가 더 먼저요?!

가뜩이나 회사에서 잘리고 심란한데, 이젠 내 물건들까지 버리면 어떡하란 말이오!!

어머니: 아휴, 또 성질이에요?! 당신 땜에 집안 꼴이 아주 난리에요 난리!

어차피 이제 쓰지도 않는 물건들이잖아요!!

아버지: 쓰지도 않는 물건...!

그래, 좋소! 그럼 이것도... 저것도!!

다 버리시오!! (물건 던지기)

어머니: 아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b: (박스더미 뒤에서) 헉...!

어머니: b! 너는 뭘 또 부모님 얘기하는 걸 엿듣고있니!?

(b의 방으로 화면 전환)

어머니: 나오라고 할 때 까지 방에 들어가있어!

b: 네... 엄마...

(문 잠기는 소리)

b: 어떡하지...?

a가 계속 찾고있을 텐데...

(창문쪽으로 확대가 되며) 앗...!

a: 못찾겠다 꾀꼬리! b! 어딨-

(괘종소리가 울려퍼진다)

아버지: b!!! 어서 내려오지 못해!?

a: ...!!

(b의 방으로 달려감)

a: 어...? 아…빠?

(일러스트)

a: 으브읍!

아버지: 어서 너 방으로 들어가! 어서!!

(회상 종료)

a: 어...라...? 이게 무슨.....?

아, 아니야. b는 지금 내 옆에 있는걸?

b: ...(심란한 표정)

a: b,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

이제 괴물도 없다구...!

그런데 왜... 계속 그런 표정으로 나를 보는건데....

b: ...a, 미안해

a: b, 왜 너가 사과를 하는거야...

아니잖아... 그치...?

왜...

왜, 왜...!!

가면 갈 수록 다들 변해가는거야??

엄마도... 아빠도...! b 너도...!!

~~날 지켜준다고 약속했으면서...!~~

예전처럼 화목하고 즐거웠던 시간은 이제 볼 수 없는거야...?

~~이럴 거면 이곳에서 영원히 이 시간만을 반복할래....!!~~

(이때 멈춰있던 괘종시계가 울리며, b가 열고있던 문이 닫혀버린다.)

(b의 시점)

b: ...!

b의 죄책감: 결국 a도 알아버렸네.

a가 그때의 시간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너탓이야.

a를 아이로 살게 만들었으면, 너가 책임을 졌어야지 안 그래?

b: ...

b’:

(a의 시점)

a: 헉, 무, 문이.....!

(a가 저택을 빠져나오고)

a: b!! 너무 늦어서 미안해

그리고... 화낸 것도 정말 미안

매번 나는 너한테 도움 받기만 했어

거기에 내가 너무 익숙해져 있었나봐

하지만 이젠 아니야...!

이번엔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니까... 우리 같이 여기서 나가자!

(최종보스전 끝난 후)

a: b, 괜찮아? 우리가... 해냈어!

엇, 악보다. 이게 마지막인 것 같지?

b: 응... 어서 돌려보자

(마지막 악보 돌림)

(b의 방)

아버지: b!!! 어서 내려오지 못해!?

b: 헉, 아빠...!

(기우뚱) 엇어어-

아버지: b...!!!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장면 전환)

(a의 방)

어머니: 내가 못살아! b, 얘는 왜 거기서 그러고있어선 정말...!!

아버지: 당신이 애를 그렇게 가둬놓았잖소...!!!

어머니:

a: (오르골을 계속해서 돌림)...괜찮아...괜찮아

나는 지금 행복한 순간에 있어...

b도...엄마 아빠도... 모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꿈에서 깨어남)

a: 다시 돌아왔네...

b: ... 고마워 a.

a: 히히, 내가 뭘

항상 a가 나에게 베풀었던 것들인걸

b: ... a

사실 난... 어쩌면 나를 위해서 어른스러운 척 행동했을지 몰라.

그게... 너를 어린아이로 만들게 했어...

a: 아니야 b

나도... 솔직히 a가 나를 챙겨주는게 좋아서,

그냥 모른체 아이처럼 굴었던 것 같아.

<엔딩>

(쌍둥이가 함께 무덤가로 향한다)

a: 이제 정말... 작별할 시간이네

b: 응... 정말

a: 오르골은 여기 두고갈게

이제 더이상

<기능 대사>

[상자밀기]

a: 음, 상자를 밀면서 가야겠는 걸?

b: 헉, b! 방금 상자 b가 민거야?

상자가 내쪽으로 떨어졌어, 조심해!

(초기화 대사)

b: 음... 이렇게 하면 못 지나갈 것 같아... 다시 해야겠는걸?

[오르골]

b: 그러고보니 a, 오르골 찾았어!

a: 헉 정말? 잃어버려서 속상했는데... 정말 다행이다.

고마워 b!

a: 걱정마 b. 우리에겐 마법의 오르골이 있잖아!

오르골의 노랫소리가 우릴 도와줄거야!

[그림자]

- 화장실 나와서 숨으면 대사 나옴

a: 휴... 숨을 곳이 있어서 다행이다

괴물을 물리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b: 흠, 뭔가 좋은 방법이...

아! 우리 대신 그림자한테 상자를 부수게 하면 어떨까?

괴물을 만나도 그림자니까 괜찮을 거야!

a: 헛, 그거 좋은 생각이다!

<사물 조사 대사>

주챕터\_1

[a]

지켜줘야 할 동생이다.

[b]

의지가 되는 친구이자 누나.

[인형]

(b가 조사 시) 넌 참 어른스러운 아이구나?

(a가 조사 시) 넌 내가 지켜줄게

[a방 책장]

동화책들이 꽃혀있다.

[책들]

~~과학아 놀자: 그림자 놀이를 해봐요~~

~~손전등을 이용해 그림자를 커졌다 작아졌다 만들어보세요!~~

~~[창문]~~

~~창문이 막혀있다.~~

[괘종시계]

시계가 멈춰있다.

a: 종이 울리기엔... 시계바늘이 한칸 모자라네

뭐... 어차피 고장난 것 같지만

휴, 조금 무서웠는데 잘됐다.

[오르골]

a가 선물로 받은 오르골. 그렇지만 서로 공유하는 것 같다.

[장난감 상자]

여러가지 장난감들이 들어있다.

주챕터\_2

[거울]

(a가 조사)

어린아이의 모습이 비친다.

거울을 깰까?

(b가 조사)

검은 형체가 비친다.

거울을 깰까?

[옷장 조사]

우리의 힘으로 열기엔 역부족이다.

[쓰러진 옷장/마네킹들]

아빠의 꿈들이 넘어져있다.

[쓰러진 침대]

더 이상 편히 누울 수 없다.

[코트입은 마네킹 조사]

열쇠를 얻었다.

~~[현관문]~~

~~문이 굳게 닫혀있다.~~